

국 어

해설위원 : 기미진 교수

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(주)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.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23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공개되었습니다.

국어의 경우 <이의제기 수용문항>과 <정답가안 정정문항>이 각 1문항씩 있었습니다.

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이의제기 수용문항-국어(7급) A형 12번(B형 14번): 복수정답 인정(④ → ②, ④)>

12.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?

- ① 손쉽다 ② 맞나다
-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

[문제 분석]

출제 영역 // 단어의 형성 방법

출제 빈도 // ★★★★★

정답 // ④ → ②, ④

[문제 해설]

- ① [X] '손쉽다'는 '손(이)+쉽다'의 '주어+서술어'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. 참고로 '손(에)+쉽다'의 구조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'부사어+서술어'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.
- ② [X] '맞나다'는 '맞(이)+나다'의 '주어+서술어'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.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명사 '맞'과 접미사 '나다'의 결합인 파생어로 보기도 합니다.
- ③ [X] '시름없다'는 '시름(이)+없다'의 '주어+서술어'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.
- ④ [O] '남다르다'는 '남(과)+다르다'의 '부사어+서술어'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.

※ **수용 사유:** '맞나다'의 경우 '합성어-파생어' 여부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미사 '나다'와 결합한 파생어의 예시로 '맞나다'가 등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입니다.
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

-나다

「접사」

((일부 명사나 명사성 어근 뒤에 붙어))

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

맞나다.

별나다.

<정답 가안 정정문항-국어(7급) A형 5번(B형 9번): 당초 ② → 정정 ①>

05. <보기>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, 객체 높임법, 상대 높임법이 있다.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(예)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'+'와 '-'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
(예)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.

(-주체, -객체, +상대)

-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.
(+주체, -객체, -상대)
-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.
(-주체, +객체, +상대)
-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.
(+주체, -객체, +상대)
-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.
(+주체, +객체, +상대)

[문제 분석]

출제 영역 // 높임법의 종류

출제 빈도 // ★★★★★

정답 // ② → ①

[문제 해설]

- ① [OX] +주체: 주체 '어머니'를 조사 '께서'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'-시-'를 써서 높이고 있습니다.
-객체: 객체 '영희'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.
+상대: '주셨다'의 종결 어미 '-다'는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으로 해라체임니다의 상대 높임법이 쓰였습니다.
- ② [XO] -주체: 주체 '영희'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.
+객체: 객체 '할머니'를 조사 '께'와 특수 어휘 '드리다'를 써서 높이고 있습니다.
+상대: '드렸다'의 종결 어미 '-다'는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으로 해라체임니다의 상대 높임법이 쓰였습니다.
- ③ [O] +주체: 주체 '어머니'를 조사 '께서'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'-시-'를 써서 높이고 있습니다.
-객체: 객체 '영희'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.
+상대: '주셨습니다'의 종결 어미 '-습니다'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으로 하십시오체(합쇼체)입니다의 상대높임법이 쓰였습니다.
- ④ [O] +주체: 주체 '어머니'를 조사 '께서'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'-시-'를 써서 높이고 있습니다.
+객체: 객체 '할머니'를 조사 '께'와 특수 어휘 '드리다'를 써서 높이고 있습니다.
+상대: '드리셨습니다'의 종결 어미 '-습니다'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으로 하십시오체(합쇼체)입니다의 상대 높임법이 쓰였습니다.

※ **정정 이유:** <보기>에서 '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'+'와 '-'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.'라고 했기 때문에 '상대 높임법'이 나타날 때를 '+', 나타나지 않을 때를 '-'로 표시해야 합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'상대 높임법'의 '높임'과 '낮춤'에 의해 '+'와 '-'를 구별하지 않고, '상대 높임법'의 사용 여부'에 따라 '+'와 '-'를 구별하였습니다.

참고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라면, 항상 '상대 높임법'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'상대 높임법'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'높임'과 '대우'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 높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'공손법', '상대 경어법', '청자 대우법'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습니다.